



나주 이슬촌 '크리스마스축제' 22일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 '해피 크리스마스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오색 안개등으로 장식된 축제를 걷고 있다. 금성산자락 농촌 마을에서 펼쳐지는 성탄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짙물샘태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위기의 가정...담배·술 때문에 '패륜살인'

### 순천서 담배 못피우게 한다면 외할머니 때려 숨지게해 술값 안준 어머니 무차별 구타 사망케한 40대 구속 등 사소한 갈등에도 존속살인 '반인륜범죄' 잇따라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혼계하는 외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패륜 외손자가 구속됐다. 30대 아들의 '반인륜적' 행위를 말리던 어머니는 아들의 폭행으로 의심되는 부상에도, 경찰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만 진술했다. '위기의 한지붕' 아래 아들의 패륜 범행으로 친정 어머니가 숨지고 자신마저 다쳤지만 끝내 자식을 둔 어머니는 '그래도 내 자식'이라며 감쌌다. <30대남성, 외할머니 때려 숨지게 해>=순천에 사는 박모(32·무직)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집 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외할머니(81)에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핀잔을 들었다. 세평 남짓한 방 안에 퍼지는 담배 연기를 의식한

할머니의 '당연한' 잔소리였지만 박씨는 참지 못했다. 화끈에 누워있던 외할머니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외상성 뇌출혈과 장기손상 뿐 아니라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를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박씨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박씨를 강력하게 말렸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박씨 어머니가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고 "아들께 폭행당해 난 상처가 아니라, 얼굴 사진이라도 찍어놓자"고 했지만 박씨 어머니는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며 폭행 여부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경찰청은 박씨에 대해 살인과 존속살

해치사 등 혐의 적용을 놓고 고민하다 지난 19일 존속살해죄로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병든 사회, '똥줄'이 무섭다>=전통적 의미의 가족 관념 해체에 사회의 도덕적 가치 붕괴, 극심한 경제 위기에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 등이 맞물리면서 존속살해와 폭행 등 반인륜(反人倫)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부터 2년간 발생한 존속범죄는 광주 21건·전남 101건 등 모두 122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존속폭행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상해 33건 ▲존속협박 6건 ▲존속살인 5건 ▲존속살해치사 3건 등이다. 우발적 범행 뿐 아니라 재산·보험금 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서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순천에 사는 최모(44)씨는 지난 8월 31일 밤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값을 주지 않

는다는 이유로 어머니(70)의 가슴·배를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했고 무안에서는 지난 7월 18일 30대 아들이 어머니(65)를 넘어뜨리고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목포에서도 지난 5월 40대 아들이 80대 어머니를 살해했다가 구속됐다. 전문가들은 가족·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빠른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교육 해체, 가족 간 혈연 관계가 얽어진 점에 주목한다. 소통 및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갈등이 폭발, 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존속범죄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등 사회적 갈등에서도 야기되는 만큼 가족 기능의 회복은 물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형기자jagolee@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8 해질 17:25 달뜨기 08:15 달지기 18:56

추위 점차 풀려요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다.

### ◇지역별 날씨(℃)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1/7 | 보성  | 구름많음 | -4/7 |
| 목포 | 구름많음 | -1/7 | 순천  | 구름많음 | 0/8  |
| 여수 | 구름많음 | 1/7  | 영광  | 구름많음 | -3/7 |
| 나주 | 구름많음 | -4/7 | 진도  | 구름많음 | -2/8 |
| 완도 | 구름많음 | -1/8 | 전주  | 구름많음 | -3/7 |
| 구례 | 구름많음 | -4/6 | 군산  | 구름많음 | -3/7 |
| 강진 | 구름많음 | -4/8 | 남원  | 구름많음 | -6/6 |
| 해남 | 구름많음 | -4/8 | 홍산도 | 구름많음 | 4/8  |
| 장성 | 구름많음 | -4/6 |     |      |      |



### ◇바다 날씨

|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 안바다    | 서~북서    | 0.5~1.0 | 남서~서    | 0.5~1.0 |
| 남부     | 면바다    | 서~북서    | 1.0~2.0 | 남서~서    | 0.5~1.5 |
| 남해     | 안바다    | 서~북서    | 0.5~1.0 | 남서~서    | 0.5~1.0 |
| 서부     | 면바다(동) | 서~북서    | 1.0~2.0 | 남서~서    | 0.5~1.5 |
| 면바다(서) | 서~북서   | 1.0~2.0 | 남서~서    | 0.5~1.5 |         |

### ◇생활지수

|    |    |
|----|----|
| 동파 | 25 |
| 운동 | 50 |
| 빨래 | 90 |

### ◇물때

|    |  | 밀물             | 썰물             |
|----|--|----------------|----------------|
| 목포 |  | 07:54<br>15:18 | 02:31<br>20:33 |
| 여수 |  | 16:04<br>22:07 | 03:22<br>16:08 |

### ◇주간 날씨

| 24(수) | 25(목) | 26(금) | 27(토) | 28(일) | 29(월) | 30(화) |
|-------|-------|-------|-------|-------|-------|-------|
|       |       |       |       |       |       |       |
| 1/9   | -3/6  | -3/6  | -2/8  | -2/7  | -2/6  | -2/6  |

## 전남교육청, 일반직 769명 정기인사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이 내년 1월1일자 4급 승진 3명, 5급 승진 12명 등 일반직공무원 76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2일 단행했다. <명단 22명> 서기관(4급)은 조항범 총무과 총무담당이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승진임용되고, 김강현 교육과정과 교육협력담당과 김평훈 재무과 경리담당은 승진해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파견된다. 이혁신 방과후학교지원단장은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전남도의회에 파견된 최수성 서기관은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을 맡는다. 사무관(5급)은 정미라 예산과 주무관 등 11명이 승진발령됐고, 이경범 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본총 총무담당으로, 황백연 순천제일고 행정실장이 본청 경리담당으로, 윤근호 본청 보건담당이 함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전보되는 등 47명이 자리를 옮긴다. 이종범 전남도교육청 총무과장은 "5급 이상은 전문성과 능력에 맞춘 적재적소 배치와 장기 근무자를 순환 보직했고, 6급 이하 승진은 격무부서와 도서지역의 근무경력을 우대하고 전보는 본인의 희망지역을 반영한 서열명부에 따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원전도면 유출 추정 인물 해외주소 사용 합수단, 미국에 공조수사 요청

### "北연계 가능성 배제 안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 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2일 유출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미국에서 등록된 것으로 파악하고 미국 수사당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 인물은 전날 새벽 1시30분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트위터에 한수원을 조롱하는 글과 함께 4개의 압축 파일을 추가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고리1·2호기 공기조화계통 도면을 비롯한 원전 관련 기술 자료들이다. 그는 트위터 글의 말미에 '하와이에서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 해'이라고 적어 자

신이 국내가 아닌 하와이에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출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원전 내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지난 15일 이후 이번 트위터 글까지 합쳐 4번째다. 법원 추정 인물은 지난 15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개인 블로그에서 'Who am I?'라는 문구로 자신을 소개한 뒤 월성 1호기 압축계통 및 배관설치 도면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번 유출 사건이 북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구멍뚫린 원전보안, 국민들은 불안한데... 한수원·정부는 "이상없다" 말만 되풀이

### 전문가 "뚫리게 더 문제"

한국수력원자력은 외부로 유출된 자료가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자칭 '원전반대그룹'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공개한 자료는 한수원 내부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부터 월성1호기 압축계통 도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수원과 정부는 이번 문서 유출로 인해 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직원 명단이나 연락처는 원전의 안전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일부 프로그램

매뉴얼은 한수원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해명이다. 한수원은 또 만일의 경우 이런 자료를 활용해 사이버 공격을 받더라도 원전 제어망이 외부와 완전히 분리돼 운영되므로 발전소 안전운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유출된 자료의 수준보다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의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한수원의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얘기가. /연합뉴스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들

## 천기누설 약초보감

MBN <천기누설> 제작팀이 1회부터 85회까지 소개한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 특별판!

# 천기누설 약초보감

### 천기누설 시리즈

21세기 가정집에 꼭 상비해야 할 책!

천기누설 1~9권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걸·김달래·이광연 감수 | 전권 151,000원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걸·김달래·이광연 감수 | 정가 85,000원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70-7516-2069